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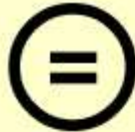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arents:

With Specific focus on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2008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권영주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arents:
With Specific focus on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2008년 2월

지도교수 박영신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권영주

이 논문을 권영주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08년 2월 일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2008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권영주

지도교수 박영신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느끼는 행복이 정서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대학생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수도권에 재학하고 있는 4년제 대학생 248명(남: 86명, 여: 162명)과 그의 부모 496명(아버지: 248명, 어머니 248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학생용 질문지와 부모용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측정변인은 신뢰, 생활만족도, 행복, 자기효능감, 정서적 지원이었으며,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학생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수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부모는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상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측정하였다. 행복의 하위변인은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요인, 건강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행복에 대해 관계효능감 및 스트레스대처효능감, 부모 및 친구의 정서적 지원이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높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둘째, 아버지의 행복에 대해 자기조절업무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과, 자녀와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높고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

셋째, 어머니의 행복에 대해 자녀의 정서적 지원, 부부관계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 가정경제수준 및 직업성취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경우에 정서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의 행복과 대학생 자녀의 행복, 어머니의 행복과 대학생 자녀의 행복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가 행복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도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문제	4
4. 연구 의의	4
II . 이론적 배경	5
1. 자기효능감의 개념	5
2. 부모 자녀관계와 행복의 관계	6
3. 정서적 지원과 행복의 관계	7
4.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	8
III . 연구방법	9
1. 분석 대상	9
2. 측정 도구	16
3. 실시 방법	15
IV . 연구결과	16
1.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행복의 관계	16
2.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행복의 관계	20
3.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행복의 관계	23
4.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상호관련	26

V. 요약 및 결론	32
1. 요약	32
2. 결론	36
참고문헌	38
영문초록	43
부록	45
<부록 1> 행복에 대한 대학생용 질문지	46
<부록 2> 행복에 대한 아버지용 질문지	52
<부록 3> 행복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	57



표 목 차

<표 1> 분석대상	10
<표 2> 분석대상의 연령평균	10
<표 3> 분석대상의 배경정보: 학생	11
<표 4> 분석대상의 배경정보: 부모	12
<표 5>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 요인분석	14
<표 6> 측정변인의 신뢰도: 학생	15
<표 7> 측정변인의 신뢰도: 부모	15
<표 8>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 대학생	17
<표 9> 사회계층, 가정경제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 대학생	17
<표 10>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대학생	19
<표 11>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 아버지	21
<표 12> 사회계층, 가정경제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 아버지	21
<표 13>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아버지	22
<표 14>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 어머니	24
<표 15> 사회계층, 가정경제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 어머니	25
<표 16>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어머니	26
<표 17>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상호관련	27
<표 18> 부모와 자녀의 자기효능감	29
<표 19> 부모와 자녀의 행복	31

I . 서론

1. 연구 목적

대한민국은 근래에 행복과 웰빙(Well-Being)으로 둘러싸인 문화적 급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고속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속에서 각종 매체와 사람들은 단체의 효율에 앞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웰빙(Well-Being)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그리고 행복(Happiness)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전체의 핵심 이슈중의 하나로 행복에 중점을 두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2007년 11월 9일, 유엔개발계획(UNDP)이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최종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삶의 질 지수)에서 한국은 26위를 기록했다(UNDP, 2007). 본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기대수명이 77.3세, 1인당 국민소득 2만 499달러와 15세 이상에서의 문자 해독률 98%이상으로 아시아에서는 4번째 등위를 기록했다(일본 7위, 홍콩 21위, 싱가포르 25위). 이 결과는 유엔개발계획이 매년 각 국가의 평균수명과 교육수준, 그리고 국민소득(GDP)의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인간개발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총점 0.912점을 받았으며 이는 1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평가이다. 한국은 경제나 스포츠 면에서 세계 상위그룹으로 랭크된 지 오래며, 이 연구결과에서는 특히 교육수준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고, GDP와 국민소득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한겨레, 2007년 11월 9일).

최근, 한국의 기업들은 ‘해피 홈퍼니’라는 경영모토를 내걸고 있는데, 이것은 사원들의 가정이 행복해야만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직장 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강조하는 가정친화경영을 의미한다(한국일보, 2007년 6월 28일). 기업의 이윤과 생산에 대한 결과만을 지향했던 기업들도 점차 가정의 행복이라는 관점을 중요한 경영이념으로 지목한 것이다.

제 17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의 복지 공약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각 후보들은 가정의 행복과 복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J후보는 ‘가족이 행복한 나라’라는 모토를 내걸었으며(뉴시스, 2007년 12월 3일), M후보는 ‘가족과 함께 과로 없는 사회’라는 주제로 사람중심, 가족중심 사회를 만들어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뉴시스, 2007년 12월 2일).

한국인들은 행복이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기본적인 행복을 가족 안에서 느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과 같이 가족중심 혈연관계로 인한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며 공동체 자체가 가족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난다(최준식, 2007). 특히,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이유로 화목한 가족관계를 꼽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의 행복에 있어서 가족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김의철, 박영신, 2004).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행복의 이유를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학생 집단과 그들의 부모집단에서 느끼는 행복의 원인을 살펴보고, 두 집단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를 위하여 대학생과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의 관계를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행복의 관계를 알아 보려 한다. 대학생의 경우, 정서적 지원의 하위변인은 총 네 개로서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 친구의 정서적 지원, 교수의 정서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모자녀관계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효능감으로 총 7개이다. 또한 행복의 하위변인은 총 8개로서,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이다.

부모의 경우, 정서적 지원 하위변인으로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자녀의 정서

적 지원, 친구의 정서적 지원, 직장상사의 정서적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는 자기조절업무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의 각 하위변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둘째, 대학생과 부모의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에서의 행복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대학생 집단과 아버지 집단, 어머니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그들이 지각한 사회계층과 가정경제 수준, 그리고 행복 간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 집단과 아버지집단, 어머니집단별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집단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시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학업부모기대, 주관성적, 객관성적, 가정경제수준, 사회계층, 신뢰, 아버지, 어머니, 교수, 친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각 하위변인(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부모자녀관계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아버지 집단에서 중다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객관적인 직업성취, 주관적인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가정수입, 사회계층, 신뢰, 배우자, 자녀, 친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각 하위변인(자기조절업무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단에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투입된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았다: 객관적인 직업성취, 주관적인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가정수입, 사회계층, 신뢰, 배우자, 자녀, 친구, 상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각 하위변인(자기조절업무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넷째,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상호관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을 하나의 결과로 합쳐, 부모집단으로 구성하고, 대학생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부모집단과 대학생(자녀)집단 간 서로 어떤 부분의 정서적 지원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고, 각 집단 간 행복의 상호관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대학생과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와 결과를 통해 제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과 부모집단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에서 행복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과 부모집단이 지각한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은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셋째, 대학생과 부모집단이 지각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각 집단 간 행복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4. 연구 의의

본 연구를 위하여 질문지는 대학생용과 아버지용, 어머니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대학생 한 집단만으로는 전체적인 행복의 요인을 찾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짐작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의 가족형태의 변동에 따라 학생집단과 부모집단의 행복을 매치하여 연구한 결과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외국의 논문들과 설문내용과는 달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한국의 특징적인 문화적 핵심을 통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설문응답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집단의 행복과 그의 부모의 행복을 별도의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고, 서로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총체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대학생 집단과 부모 집단이 받는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행복지각에 대한 정도를 알 수 있다.

둘째, 각 대학생 집단과 부모집단이 지각하는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행복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셋째, 대학생집단, 아버지 집단, 어머니집단에게 있어 행복이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넷째,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으로 인한 행복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

Ⅱ .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신의 행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에 요구되는 노력을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신념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 말한다(Bandura, 1997b). 풀어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맡은 일이나 업무, 과제 등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단 업무를 맡아 하는데 있어서의 자신감의 측면 뿐 아니라, 일을 할 때 노력의 효율성이나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같은 세부적인 심리작용을 포함하며, 직면된 상황에 따라 자신이 입장을 입증하여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이 효능감에 대한 신념이란, 사람들마다 큰 영향을 준 경험을 통해 그들의 신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비슷한 종류의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감은 사람들에게 굳은 효능감으로 자리잡게 되고, 실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효능감을 손상시킨다. 또한 효능감은 이미 만들어진 습관을 통해서 선택되기도 하며 발전하기도 한다. 간혹, 사람들이 상당히 쉬운 과제에 있어서만 성공경험이 있다면, 다음 경험 시에도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패에 대하여 더 크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효능감은 탄력 있는 심리적 작용기제로서 방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극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은 성공경험에 필요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가져오는 유용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Bandura, 1995). 박영신과 김의철(2001)은 자기효능감이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판단과 능력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잘하는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되거나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DiClemenete, 1996) 매 수행하는 업무나 역할, 행동마다 상이한 결과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Bandura, , 1996;Bandura, 1997a). 또한 강한 효능감이나 신념을 위한 영향력 있는 방법은 사회적 모델을 통한 대리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타인의 성공에 의해서 많은 자극을 받는다. 또한 이것은 실제로 그들의 성공을 위한 행동이나 경험에 많은 영향을 준다(Bandura, 1995; Schunk, 1982).

2. 부모 자녀관계와 행복의 관계

부모 자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가족 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하여 학생집단과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6a)에서는 삶의 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화목한 가족관계라고 나타났다. 화목한 가족관계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반면,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는 가족 간 갈등이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한국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에서도 가족간의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자녀관계의 상호작용과 역동이 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준 것을 밝힌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3)와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학생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가 있다. 더불어, 자녀가 느끼는 생활만족도가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연구(김의철, 박영신, 2001)와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를 나타낸 연구(박영신, 2000)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부모 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애정과 통제를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이것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된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0)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3. 정서적 지원과 행복의 관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2007)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행복지수와 관련한 연구를 하였는데, 학생들의 학교교육 행복도가 진학을 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의 주로 토로한 행복감소의 원인은 입시부담이었는데, 특이할 점은, 가정생활을 행복하다고 답한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의 행복도도 높았다는 점이다. 교사나 친구와 같은 대인관계와 만족도인 정서적 상태를 포함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실시한 연구이므로 학생들에게 가정안에서의 정서적 지원은 학생들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가정의 화목을 위해 자녀와의 관계적인 정서를 중요시 한다는 것은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문순덕, 2006)와 부모의 정서적 표현과 인식이 아동의 정서적 능력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우수경, 2002)는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청소년의 일탈경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간관계 변인들 중 친구의 따돌림이나 부모의 거부, 교사의 적대적인 태도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일탈 경험을 가속화시켰다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람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2006b)에서는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의 같은 집단에서 받는 정서적 지원이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지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다룬 연구(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에서는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사회적 지원과 관련한 요인들이 삶의 질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 어머니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았던 연구(Uichol Kim, Young-Shin Park, Yong-Eun Kwon, 2005)에서는 성인여자(젊은 어머니)와 할머니(고연령층의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가치를 정서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젊은 어머니와 고연령층의 어머니 모두 부모에게서 받는 정서적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

자기효능감은 David G. Myers(1993)는 ‘The Pursuit of Happiness’라는 그의 저서에서, 누가 행복한지? 왜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건강한 신체와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 긍정적인 자기존중, 감정의 제어와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 업무와 도전, 신념 등을 행복의 요소로 꼽고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의철, 박영신, 2006b)에서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개인의 효능감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자기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이명자, 송영명, 2005)에서는 자기조절학습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 스스로 자신을 높게 평가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특성을 분석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일반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효능감이 낮을수록 자신에 대한 저평가를 내리고, 이로 인해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족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자녀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학생의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결과로 제시한 연구(노호은, 박경자, 2001)가 있었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징에 의한 신체상과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2003)에서는 환경과 대인관계가 미치는 정도가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에 믿음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힌다.

한국의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게임사용의 정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이석범, 이경규, 백기청 et al, 2001)에서는, 컴퓨터의 사용경향과 가상 공간 등이 중독군과 비중독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있다. 인터넷을 많이 하는 게임 중독군의 경우, 게임중독 초기에는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으로 발동하여 작용하지만, 인터넷 중독이 되고 난 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자기효능감이 부정적으로 변모하여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척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 초기에는 새로운 게임과 환경에서의 유저들과 만나는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점점 깊이 게임이 빠질수록 혼자서만 게임을 하고 단독 플레이를 하는 등 대인관계자기효능감이 점점 떨어졌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김의철, 박영신, 2004)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변인으로는 자기조절과 같은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Ⅲ .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대학생의 행복이나 부모의 행복에 대한 조사나 연구들이 최근 수년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자녀와 부모의 가치관을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학생 세대나 부모세대의 행복에 대한 관점을 따로 살펴보는 경우에는 서로의 관계나 역동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동시에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서울과 인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4년제 대학교 6곳과 광주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1곳의 대학생 812명과 그의 아버지 812명, 어머니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업시간에 설문지가 배부되기 전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명과 안내를 한 후 배부하였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설문 배포를 시작하여, 2007년 4월 까지 수거 하였는데, 학생용 설문지는 실시 당일에 바로 걷었고, 부모용 설문지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체크를 해오도록 안내한 후, 다음 시간에 수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설문지는 학생용과 부모용에 같은 번호를 기입하여 수거 시 한 세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기한 후에 배부하였으며 수거 후에는 같은 번호끼리 짝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학생과 부모의 세트로 구성된 설문지는 총 26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분석대상은 248쌍으로 총 인원은 744명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분석대상

구분	학생	아버지	어머니	전체
남	86	248	-	334
여	162	-	248	410
Total	248	248	248	744

학생과 부모의 연령에 대한 표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생의 경우, 연령의 범위는 17세에서 28세이며 연령의 평균은 21.36세, 표준편차는 2.13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이 2~3학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 범위는 40세에서 74세로, 연령 평균은 51.25세였으며 표준편차는 4.12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연령 범위가 38세에서 63세로 나타났으며 연령 평균은 48.27세, 표준편차는 3.61이었다.

<표 2> 분석대상의 연령 평균

	연령(만 나이)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	17~28	21.36	2.13
아버지	40~74	51.25	4.12
어머니	38~63	48.27	3.61

최종 분석대상으로 투입된 학생들의 배경정보는 <표 3>와 같다. 소속대학의 경우 공과대와 이과대에 편중된 모습이 보이지만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설문응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4학년, 1학년 순이었다.

객관적인 학교성적의 경우 상위권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하위권이라고 답한 학생들은 매우 적었다. 본인이 생각할 때 학업에서의 성취도의 경우는 보통과 약간 높은 성취라고 답한 학생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최상(1), 상(2), 중(3), 하(4), 최하(5)로 측정되었는데, 과반 수가 넘는 학생들이 중이라고 답하였으며 하라고 답한 학생의 수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자신의 가정 경제수준이 최상이라는 응답을 한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에서는 최상류층(1), 상류층(2), 중류층(3), 하류층(4), 극빈층(5)와 같이 측정하였는데, 중류층이라고 답한 학생의 수가 과반수를 넘었고, 하류층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본 문항에서는 극빈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분석대상의 배경정보: 학생

구분	세부 구분	전체(%)
소속대학	공과대	72 (29.3)
	이과대	58 (23.6)
	경영대	3 (1.2)
	경상대	2 (0.8)
	사범대	6 (2.4)
	예술체육학부	8 (3.3)
	법과대	4 (1.6)
	문과대	61 (24.8)
	의과대	9 (3.7)
	생활과학대	17 (6.9)
	사회과학대	6 (2.4)
학년	1학년	13 (5.2)
	2학년	113 (45.6)
	3학년	77 (31.0)
	4학년	45 (18.1)
객관적인 학교성적	수/A	58 (23.5)
	우/B	153 (61.9)
	미/C	30 (12.1)
	양/D	5 (2.0)
	가/F	1 (0.4)
본인이 생각할 때 학업에서의 성취도	매우 높은 성취	7 (2.8)
	약간 높은 성취	112 (45.2)
	보통	113 (45.6)
	약간 낮은 성취	14 (5.6)
	매우 낮은 성취	2 (0.8)
가정의 경제수준	상	25 (10.1)
	중	176 (71.0)
	하	46 (18.5)
	최하	1 (0.4)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	최상류층	3 (1.2)
	상류층	19 (7.7)
	중류층	195 (78.9)
	하류층	30 (12.1)
부모 유무	친부모 아님	12 (4.8)
	친부모	236 (95.2)

부모 유무를 보면,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응답자 대부분이 친부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친부모가 아니라는 응답은 전체응답자 수의 4.8%로 나타났다.

<표 4> 분석대상의 배경정보: 부모

구분	세부구분	남(%)	여(%)	전체(%)
학력	초등학교 졸업	10 (4.1)	10 (4.1)	20 (4.1)
	중학교 졸업	15 (6.2)	39 (16.1)	54 (11.2)
	고등학교 졸업	121 (50.2)	153 (63.2)	274 (56.7)
	대학교 졸업	84 (34.9)	37 (15.3)	121 (25.1)
	대학원 졸업	11 (4.6)	3 (1.2)	14 (2.9)
직업	무직	7 (3.0)	117 (49.6)	124 (26.3)
	노동/생산직	59 (25.0)	46 (19.5)	105 (22.2)
	판매/서비스직	61 (25.8)	51 (21.6)	112 (23.7)
	사무/관리직	61 (25.8)	13 (5.5)	74 (15.7)
	고위관리/전문직	48 (20.3)	9 (3.8)	57 (12.1)
직급	사원	41 (22.9)	51 (63.0)	92 (35.4)
	대리/과장급	31 (17.3)	14 (17.3)	45 (17.3)
	차장/부장급	46 (25.7)	4 (4.9)	50 (19.2)
	임원급	61 (34.1)	12 (14.8)	73 (28.1)
객관적인 직업성취	매우 높은 성취	29 (12.3)	4 (3.6)	33 (9.6)
	약간 높은 성취	80 (34.0)	29 (26.4)	109 (31.6)
	보통	104 (44.3)	57 (51.8)	161 (46.7)
	약간 낮은 성취	15 (6.4)	14 (12.7)	29 (8.4)
	매우 낮은 성취	7 (3.0)	6 (5.5)	13 (3.8)
본인이 볼 때 직업에서 성취도	매우 높은 성취	32 (13.8)	5 (4.6)	37 (10.9)
	약간 높은 성취	72 (31.0)	25 (22.9)	97 (28.4)
	보통	101 (43.5)	59 (54.1)	160 (46.9)
	약간 낮은 성취	20 (8.6)	13 (11.9)	33 (9.7)
	매우 낮은 성취	7 (3.0)	7 (6.4)	14 (4.1)
가정의 경제수준	최상	1 (4)	1 (4)	2 (4)
	상	20 (8.3)	19 (7.9)	39 (8.1)
	중	164 (68.0)	169 (70.4)	333 (69.2)
	하	53 (22.0)	46 (19.2)	99 (20.6)
	최하	3 (1.2)	5 (2.1)	8 (1.7)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	최상류층	1 (4)	1 (4)	2 (4)
	상류층	13 (5.4)	13 (5.4)	26 (5.4)
	중류층	160 (66.9)	162 (67.8)	322 (67.4)
	하류층	62 (25.9)	58 (24.3)	120 (25.1)
	극빈층	3 (1.3)	5 (2.1)	8 (1.7)
자녀성공	매우 실패	1 (4)	1 (4)	2 (4)
	약간 실패	2 (8)	6 (2.5)	8 (1.7)
	보통	101 (42.1)	107 (44.8)	208 (43.4)
	약간 성공	99 (41.3)	84 (35.1)	183 (38.2)
	매우 성공	37 (15.4)	41 (17.2)	78 (16.3)

<표 4> 은 부모의 최종 분석 대상 중 배경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응답과 어머니의 응답이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무직을 제외한 노동/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사무/관리직, 고위관리/전문직에서 비슷한 수의 응답을 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무직(전업주부)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하였다.

객관적인 직업성취나 본인이 볼 때 직업에서 성취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매우 높은 성취와 약간 높은 성취를 더한 값이 매우 낮은 성취와 약간 낮은 성취에 비해 좀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은 정상분포를 나타냈다.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상류층이나 상류층이라고 답한 사람보다는 하류층이나 극빈층이라고 응답한 수가 더 많았다.

자녀성공에 대하여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매우성공이나 약간성공이라는 답변은 매우실패나 약간실패라는 답변에 비하여 다수가 응답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의 부모의 행복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학생용과 성인용으로 나뉘며 성인용은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배경정보, 신뢰(Yamagishi, 1998), 생활만족도, 행복, 주관적 안녕감(Diener, 1984), Bandura(1997)의 이론을 포함한 자기효능감, 정서적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표 5>는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에서 어떤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대학생과 부모가 행복에 대한 문항에 답한 결과를 합쳐 분석을 하였는데, 대학생집단과 부모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행복의 구성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대학생집단과 부모집단에서의 행복은 총 5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요인들의 설명변량은 정서적 요인이 15.753%, 사회적

요인이 29.390%, 가정적 요인이 41.584%, 긍정적시각 요인이 53.124%, 그리고 건강 요인이 61.173%로 나타났다.

<표 5>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 요인분석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요인	건강 요인
인간관계: 3.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	.658	-.034	.167	.091	.113
인간관계: 24.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658	.167	.113	.113	.063
성취: 4.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650	.223	.153	.234	.164
인간관계: 10.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595	.023	.185	.382	.186
성취: 11. 나의 성취수준에 자부심을 갖는다.	.561	.311	.053	.292	.165
인간관계: 17.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540	.075	.274	.305	.134
경제여유: 16. 꼭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된다.	.532	.481	.339	-.126	.088
성취: 18.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529	.046	.226	.443	.177
성취: 25. 내 삶이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본다.	.524	.464	.175	.297	.113
자기조절: 13. 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 본다.	.411	.313	.108	.376	.191
사회안정: 7.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089	.725	-.025	.212	.126
사회안정: 14.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00	.656	-.021	.187	.167
가정화목: 1.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356	.642	.274	.013	.155
경제여유: 2.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436	.625	.317	-.016	.130
사회안정: 28. 내가 하고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에 산다.	.258	.576	.136	.361	.056
사회안정: 21. 나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012	.571	.005	.458	.195
경제여유: 9. 경제적 부담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414	.517	.328	.030	.236
경제여유: 23.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153	.156	.823	.213	.060
가정화목: 22. 우리 식구들은 서로 위해 준다.	.175	.042	.796	.265	.127
가정화목: 8.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다.	.164	.174	.771	.101	.058
가정화목: 15. 가족들은 서로 아껴준다.	.258	.008	.771	.090	.136
자기조절: 20.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하지 않는다.	.207	.204	.104	.716	.179
자기조절: 6. 어떤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31	.148	.222	.705	.124
자기조절: 27. 늘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275	.219	.276	.651	.094
건강: 26. 나는 넘치는 기운으로 매사에 의욕이 있다.	.354	.286	.211	.460	.350
건강: 12. 나는 체력이 강하다.	.195	.178	.111	.235	.792
건강: 5. 나는 몸이 건강하다.	.182	.230	.168	.063	.790
건강: 19. 나는 피로를 모르고 활기차게 생활한다.	.265	.261	.083	.361	.623
Eigen value	4.414	3.816	3.414	3.231	2.254
분산율(%)	15.753	29.390	41.584	53.124	61.173
Cronbach alpha	.88	.82	.79	.83	.8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 문항구성과 Cronbach α 값이 <표 6>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의 경우, 각 측정 변인별 신뢰도가 Cronbach α =.71~.93이었으며 부모의 경우는 신뢰도가 Cronbach α =.77~.9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Cronbach α =.71~.95로 양호한 신뢰도 계수를 보이고 있다.

<표 6> 측정변인의 신뢰도: 학생

변인	하위변인	문항	신뢰도
삶의 질	감정적 요인	3 4 10 11 13 16 17 18 24 25	.85
	사회적 요인	1 2 7 9 14 21 28	.80
	가족적 요인	8 15 22 24	.71
	긍정적 태도 요인	6 20 26 27	.72
	건강 요인	5 12 19	.80
	삶의 질 전체	1~28	.80
	주관적안녕감(Diener)	29 30 31 32 33 34	.88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82
신뢰	신뢰	1 2 3 4 5 6	.73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1 8 15 22 29 36	.84
	자기주장효능감	2 9 16 23 30 37	.84
	사회성효능감	3 10 17 24 31 38	.85
	관계효능감	4 11 18 25 32 39	.75
	어려움극복효능감	5 12 19 26 33 40	.86
	부모자녀관계효능감	6 13 20 27 34 41	.82
	스트레스대처효능감	7 14 21 28 35 42	.84
정서적 지원	아버지지원	1 2 3 4 5 6	.93
	친구지원	1 2 3 4 5 6	.87
	어머니지원	1 2 3 4 5 6	.92
	교수지원	1 2 3 4 5 6	.93

<표 7> 측정변인의 신뢰도: 부모

변인	하위변인	문항	신뢰도
삶의 질	감정적 요인	3 4 10 11 13 16 17 18 24 25	.88
	사회적 요인	1 2 7 9 14 21 28	.88
	가족적 요인	8 15 22 24	.77
	긍정적 태도 요인	6 20 26 27	.77
	건강 요인	5 12 19	.84
	삶의 질 전체	1~28	.89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신뢰	신뢰	1 2 3 4 5 6	.81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업무효능감	1 8 15 22 29 36	.84
	자기주장효능감	2 9 16 23 30 37	.85
	사회성효능감	3 10 17 24 31 38	.87
	관계효능감	4 11 18 25 32 39	.85
	어려움극복효능감	5 12 19 26 33 40	.88
	부부관계효능감	6 13 20 27 34 41	.85
	스트레스대처효능감	7 14 21 28 35 42	.87
정서적 지원	배우자지원	1 2 3 4 5 6	.95
	친구지원	1 2 3 4 5 6	.93
	자녀지원	1 2 3 4 5 6	.94
	직장상사지원	1 2 3 4 5 6	.93

3. 실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거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률이 좋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한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입력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한 반응을 점검하여 일련의 오류들을 수정하여 분석 자료를 점검하였다. 검토한 최종 분석 대상은 척도의 하위변인별 Cronbach α 값을 구해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대학생 집단, 아버지 집단, 어머니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행복의 관계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을 보면 행복 각 하위변인과 정서적 지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관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다.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모두 행복 각 하위변인과 $r=.18\sim.64$ 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적 지원 변인에서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교수 그리고 친구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변인에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버지에게서 받는 정서적인 지원은 행복의 하위변인 중 가정적 요인에 높은 정적 상관($r=.60$)을 나타고 있으며, 어머니에게서 받는 정서적인 지원 역시 가정적 요인($r=.52$)에서 높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대학생이 아버지, 어머니, 교수,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하다고 지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변인을 살펴보면, 각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지하고 있을수록 행복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개인적인 성취($r=.48$)에서, 자기주장효능감은 정서적 요인($r=.36$)에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성 효능감은 정서적 요인($r=.45$)와 행복전체($r=.45$)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관계효능감은 정서적 요인($r=.60$)에, 어려움극복효능감은 긍정적 사고($r=.64$)를, 부모자녀관계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적 요인($r=.55$)와 행복전체($r=.56$)를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긍정적 사고($r=.60$)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대학생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 대학생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행복 전체	주관적 안녕감 (Diener)
정서적 지원	아버지	.41 ***	.47 ***	.60 ***	.41 ***	.31 ***	.53 ***	.40 ***
	어머니	.47 ***	.36 ***	.52 ***	.35 ***	.23 ***	.49 ***	.43 ***
	교수	.41 ***	.35 ***	.28 ***	.35 ***	.27 ***	.42 ***	.34 ***
	친구	.51 ***	.23 ***	.37 ***	.31 ***	.31 ***	.43 ***	.36 ***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46 ***	.28 ***	.18 **	.28 ***	.27 ***	.41 ***	.40 ***
	자기주장효능감	.36 ***	.18 **	.21 **	.34 ***	.25 ***	.34 ***	.29 ***
	사회성효능감	.45 ***	.31 ***	.25 ***	.41 ***	.31 ***	.45 ***	.42 ***
	관계효능감	.60 ***	.41 ***	.52 ***	.47 ***	.37 ***	.60 ***	.51 ***
	어려움극복효능감	.48 ***	.40 ***	.22 **	.64 ***	.40 ***	.54 ***	.45 ***
	부모자녀관계효능감	.55 ***	.42 ***	.48 ***	.38 ***	.30 ***	.56 ***	.51 ***
	스트레스대처효능감	.41 ***	.44 ***	.25 ***	.60 ***	.41 ***	.52 ***	.40 ***

*** $p < .001$

<표 9>는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 그리고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나타난 결과이다.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에서 행복의 하위변인은 대체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9>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 대학생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행복 전체	주관적 안녕감 (Diener)
사회계층	.16 *	.30 ***	.15 *	.14 *	.17 *	.23 ***	.19 **
가정경제수준	.35 ***	.39 ***	.27 ***	.22 ***	.23 ***	.38 ***	.31 ***

* $p < .05$, ** $p < .01$, *** $p < .001$

표를 살펴보면 사회계층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사회적 요인과 정적인 상관

($r=.30$)이 있었고, 가정경제수준과 사회적 요인에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는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것이다. 종속변인으로 투입된 행복의 각 하위변인은 다음과 같다: 정서적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인 시각, 건강, 주관적 안녕감. 또한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학업부모기대, 주관성적, 객관성적, 가정경제수준, 사회계층, 신뢰, 아버지, 어머니, 교수, 친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각 하위변인(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부모자녀관계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표 10>에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요인의 경우에는 관계효능감 ($R^2=.29$)이 높은 β 값을 나타내고 있다. 관계효능감은 친구의 정서적 지원과 주관적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함께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났다. 또한 교수의 정서적 지원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β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효능감과 친구의 정서적 지원, 주관적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과 스트레스대처효능감, 교수의 정서적 지원을 높이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정서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을 보면 아버지의 정서적지원이 $\beta=.14$ 로 나타났고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값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beta=.28$, 가정경제수준은 $\beta=.32$ 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이었다. 교수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자녀관계효능감은 모두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β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 각 하위변인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신뢰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정경제수준과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인 부분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정서적지원이 $\beta=.25$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효능감이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적지원은 $\beta=.15$ 로 나타났고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가정경제수준은 $\beta=.13$ 로 나타났고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인이었

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대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Square
정서적 요인	관계효능감	.29	.29 ***	.37
	정서적 지원: 친구	.29	.31 ***	.44
	주관적 학업성적	.14	.18 ***	.51
	가정경제수준	.20	.21 ***	.55
	스트레스대처효능감	.13	.17 ***	.58
사회적 요인	정서적 지원: 교수	.08	.13 **	.60
	정서적 지원: 아버지	.14	.20 **	.22
	신뢰	.28	.23 ***	.32
	가정경제수준	.32	.27 ***	.39
	스트레스대처효능감	.16	.17 **	.42
가정적 요인	정서적 지원: 교수	.11	.14 *	.44
	부모자녀관계효능감	.13	.13 *	.44
	정서적 지원: 아버지	.25	.36 ***	.35
	관계효능감	.31	.26 ***	.45
긍정적 태도 요인	정서적 지원: 어머니	.15	.18 **	.47
	가정경제수준	.13	.11 *	.48
	스트레스대처효능감	.46	.41 **	.36
	관계효능감	.21	.15 ***	.44
건강 요인	신뢰	.26	.19 **	.48
	사회계층	.20	.16 *	.50
	정서적 지원: 아버지	.11	.13 *	.51
	스트레스대처효능감	.33	.27 ***	.16
	정서적 지원: 친구	.28	.20 **	.24
주관적안녕감 (Diener)	신뢰	.24	.15 **	.26
	가정경제수준	.20	.14 *	.29
	관계효능감	.21	.14 *	.30
	관계 효능감	.35	.25 ***	.26
	스트레스대처 효능감	.21	.19 **	.32
	주관적 학업성적	.21	.19 ***	.36
	정서적 지원: 어머니	.13	.13 *	.38
	가정경제수준	.22	.16 **	.40
	정서적 지원: 친구	.20	.15 *	.42

* $p < .05$, ** $p < .01$, *** $p < .001$

이는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과 관계효능감,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과 가정경제 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가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긍정적 태도 요인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설명력이 36%를 가지며, $\beta = .46$ 으로 나타났다. 관계효능감은 $\beta = .21$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인

이었으며 12%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신뢰는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β 값을 나타내었다. 사회계층과 아버지의 정서적지원은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값을 나타냈으며 각 변인 모두 $\beta = .10$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건강 요인은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beta = .33$ 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p < .01$ 수준에서, 가정경제수준과 관계효능감은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드러났다.

주관적안녕감 경우에는 관계효능감이 $\beta = .35$ 로 높은 β 값을 보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 가정경제수준,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과 친구의 정서적 지원은 모두 $\beta = .13$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관계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효능감, 주관적 학업성적,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 가정경제수준, 친구의 정서적 지원을 높을수록 주관적안녕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2.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행복의 관계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의 경우, $r = .34 \sim .73$ 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가정적 요인($r = .73$)과 상관의 강도가 높았고, 친구의 정서적 지원도 가정적 요인($r = .59$)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서도 가정적 요인($r = .59$)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상사의 정서적 지원에서는 행복전체($r = .45$)에서 상관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배우자, 자녀, 친구, 상사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정서적요인, 사회적요인, 가정적요인, 긍정적 사고, 건강, 행복전체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모든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모든 행복하위변인이 $r = .40 \sim .77$ 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자기조절업무 효능감은 행복전체($r = .69$)에, 자기주장효능감은 정서적요인($r = .57$)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성효능감은 정서적요인($r = .58$)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관계효능감은 가정적요인($r = .66$),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는 정서적요인($r = .63$)이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부관계효능감은 가정적요인($r = .77$)과, 스트레스대처

효능감은 행복전체($r=.62$)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로 보아,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의 정도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 아버지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행복 전체
배우자	.56 ***	.49 ***	.73 ***	.47 ***	.40 ***	.60 ***
자녀	.52 ***	.43 ***	.59 ***	.48 ***	.35 ***	.55 ***
친구	.61 ***	.41 ***	.60 ***	.52 ***	.42 ***	.59 ***
상사	.44 ***	.36 ***	.41 ***	.39 ***	.34 ***	.45 ***
자기조절업무효능감	.68 ***	.54 ***	.64 ***	.61 ***	.51 ***	.69 ***
자기주장효능감	.57 ***	.40 ***	.49 ***	.48 ***	.38 ***	.54 ***
사회성효능감	.58 ***	.45 ***	.50 ***	.53 ***	.40 ***	.57 ***
관계효능감	.65 ***	.51 ***	.66 ***	.53 ***	.47 ***	.65 ***
어려움극복효능감	.63 ***	.48 ***	.56 ***	.61 ***	.44 ***	.63 ***
부부관계효능감	.65 ***	.57 ***	.77 ***	.55 ***	.48 ***	.69 ***
스트레스대처효능감	.59 ***	.52 ***	.51 ***	.61 ***	.45 ***	.62 ***

*** $p<.001$

<표 12>은 아버지의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 그리고 행복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사회계층을 살펴보면, 각 행복 하위변인과 $r=.34\sim.51$ 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2>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 아버지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행복 전체
사회계층	.50 ***	.50 ***	.37 ***	.37 ***	.34 ***	.51 ***
가정경제수준	.47 ***	.51 ***	.37 ***	.43 ***	.33 ***	.51 ***

*** $p<.001$

가정경제도 마찬가지로 각 행복 하위변인들과 $r=.33\sim.51$ 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아버지들은 사회계층과 가정경제가 높을수록 행복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변인은 다음과 같

다: 정서적요인, 사회적요인, 가정적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또한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변인은 다음과 같다: 객관적인 직업성취, 주관적인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가정수입, 사회계층, 신뢰, 배우자, 자녀, 친구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각 하위변인(자기조절업무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표 13>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아버지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Square
정서적 요인	자기조절업무효능감	.19	.17 **	.47
	정서적 지원: 친구	.21	.23 ***	.57
	사회계층	.24	.20 ***	.63
	관계효능감	.28	.26 ***	.67
	주관적인 직업성취	.13	.19 ***	.70
	정서적 지원: 배우자	.10	.13 **	.70
사회적 요인	부부관계효능감	.28	.28 ***	.34
	가정경제수준	.30	.26 ***	.44
	신뢰	.26	.26 ***	.52
	주관적인 직업성취	.10	.13 *	.53
	정서적 지원: 자녀	.10	.12 *	.54
가정적 요인	부부관계효능감	.24	.24 **	.60
	정서적 지원: 자녀	.17	.20 ***	.66
	정서적 지원: 배우자	.25	.31 ***	.69
	관계효능감	.25	.23 ***	.72
	사회계층	.14	.11 **	.73
긍정적 태도 요인	어려움극복효능감	.33	.30 ***	.39
	주관적인 직업성취	.11	.14 **	.46
	정서적 지원: 자녀	.19	.21 ***	.51
	사회성효능감	.18	.16 *	.53
	가정경제수준	.17	.13 *	.55
	신뢰	.15	.13 *	.56
건강 요인	자기조절업무효능감	.31	.26 **	.28
	신뢰	.21	.20 **	.34
	주관적인 직업성취	.13	.17 **	.36
	관계효능감	.20	.17 *	.37

* $p < .05$, ** $p < .01$, *** $p < .001$

정서적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조절업무효능감이 전체변량의 47%로 아버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바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았다. 친구의 정서적지원($\beta = .21$)과 사회계층($\beta = .24$), 관계효능감($\beta = .28$), 주관적인 직업성취($\beta = .13$)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요인을 보면, 부부관계효능감이 $\beta = .28$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냈으며 34%의 설명력을 가진다. 가정경제수준과 신뢰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인 직업성취와 자녀의 정서적지원은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인이었다.

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부관계효능감이 $\beta = .24$ 로 나타났으며, 전체 6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정서적지원($\beta = .17$)과 배우자의 정서적지원($\beta = .25$)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회계층은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인이었다.

긍정적 태도 요인은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전체설명력의 39%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적 지원 또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직업성취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성효능감과 가정경제수준, 그리고 신뢰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건강 요인은 자기조절업무효능감이 $\beta = .31$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신뢰가 $\beta = .21$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주관적인 직업성취가 $\beta = .13$ 로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관계효능감은 $\beta = .20$ 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이었다.

3.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행복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행복의 관계가 <표 14>에 나타나있다. 표를 보면, 모든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특히 가정적요인($r = .62$)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행복전체($r = .54$)와 정서적 요인($r = .46$)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녀의 정서적 지원은 가정적요인($r = .54$)과 행복전체($r = .50$)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정서적요인($r = .49$)에서도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친구의 정서적 지원은 정서적 요인($r = .55$)에서 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행복전체($r = .46$)에서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상사의 정서적 지원을 보면, 행복전체($r = .49$)와 정서적 요인($r = .48$)에서 특히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적 요인($r = .42$)과 긍정적 태도 요인($r = .40$)와도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배우자, 자녀, 친구, 상사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4>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 어머니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행복 전체
배우자	.46 ***	.42 ***	.62 ***	.46 ***	.28 ***	.54 ***
자녀	.49 ***	.33 ***	.54 ***	.44 ***	.31 ***	.50 ***
친구	.55 ***	.25 ***	.41 ***	.35 ***	.28 ***	.46 ***
상사	.48 ***	.33 **	.42 ***	.40 ***	.28 **	.49 ***
자기조절업무효능감	.61 ***	.40 ***	.46 ***	.51 ***	.41 ***	.59 ***
자기주장효능감	.53 ***	.42 ***	.41 ***	.51 ***	.40 ***	.56 ***
사회성효능감	.57 ***	.44 ***	.41 ***	.45 ***	.40 ***	.57 ***
관계효능감	.63 ***	.42 ***	.62 ***	.51 ***	.36 ***	.61 ***
어려움극복효능감	.63 ***	.51 ***	.50 ***	.68 ***	.48 ***	.67 ***
부부관계효능감	.58 ***	.55 ***	.70 ***	.59 ***	.40 ***	.68 ***
스트레스대처효능감	.54 ***	.50 ***	.43 ***	.64 ***	.47 ***	.62 ***

** $p < .01$, *** $p < .001$

자기효능감을 보면, 모든 행복 하위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조절업무효능감을 보면 정서적 요인($r=.61$)이 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행복전체($r=.59$)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주장효능감은 행복전체($r=.56$)와 정서적 요인($r=.53$)에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성효능감은 행복전체($r=.57$)와 정서적 요인($r=.57$)가 그 뒤를 이었다. 관계효능감은 정서적 요인($r=.63$)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가정적 요인($r=.62$)이 그 뒤를 이었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긍정적 태도 요인($r=.68$)과 행복전체($r=.67$)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정서적 요인($r=.63$)과의 상관도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효능감은 가정적 요인($r=.70$)과 행복전체($r=.68$)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적 요인($r=.59$)과 정서적 요인($r=.58$)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긍정적 사고($r=.64$)와 행복전체($r=.62$)에서 높은 상관관계 값을 나타냈고, 정서적 요인($r=.54$)와 사회적 요인($r=.50$)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5>은 어머니의 사회계층, 가정경제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계층은 모든 행복 하위변인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요인($r=.48$)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행복전체($r=.46$)와 정서적 요인($r=.44$)가 높았다. 이로 미루어 어머니집단의 경우, 사회계층을 높게 인식할수록,

행복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경제를 보면, 역시 행복 각 하위변인 모두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사회적 요인($r=.44$)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면, 어머니집단에서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5>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 어머니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행복 전체
사회계층	.44 ***	.48 ***	.30 ***	.22 **	.27 ***	.46 ***
가정경제	.36 ***	.44 ***	.28 ***	.21 **	.26 ***	.41 ***

** $p<.01$, *** $p<.001$

어머니 집단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가 아래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입된 종속변인은 다음과 같다: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또한 투입된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객관적인 직업성취, 주관적인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가정수입, 사회계층, 신뢰, 배우자, 자녀, 친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각 하위변인(자기조절업무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정서적 요인을 보면 주관적인 직업성취가 $\beta=.18$ 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계효능감과 사회계층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β 값을 나타냈다. 자녀의 정서적 지원은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을 보면, 가정경제수준이 $\beta=.37$ 로 나타났고,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효능감은 $\beta=.34$ 로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이었다.

가정적 요인을 보면, 부부관계효능감이 $\beta=.46$ 으로 높은 β 값을 나타냈고,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관계효능감은 $\beta=.27$ 로 $p<.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 요인을 보면, 어려움극복효능감이 $\beta=.48$ 으로 가장 높은 β 값을

나타났고,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은 $\beta = .44$ 이며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이고 자녀의 정서적 지원은 $\beta = .20$ 으로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16>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어머니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Square
정서적 요인	주관적인 직업성취	.18	.28 **	.29
	관계효능감	.31	.32 **	.46
	사회계층	.32	.32 **	.53
	정서적지원: 자녀	.18	.22 *	.57
사회적 요인	가정경제수준	.37	.35 **	.21
	부부관계효능감	.34	.35 **	.32
가정적 요인	부부관계효능감	.46	.51 ***	.44
	관계효능감	.27	.27 **	.49
긍정적 태도 요인	어려움극복효능감	.48	.40 ***	.42
	부부관계효능감	.44	.38 ***	.54
	정서적지원: 자녀	.20	.18 *	.57
건강 요인	스트레스대처효능감	.46	.38 ***	.21
	사회계층	.42	.28 **	.30
	정서적지원: 자녀	.27	.22 *	.34

* $p < .05$, ** $p < .01$, *** $p < .001$

건강 요인은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beta = .46$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계층은 $p < .01$ 수준에서, 자녀의 정서적 지원은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 드러났다.

4.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상호관련

<표 17>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서의 상호관련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대학생의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r = .27$)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의 정서적 지원과는 무상관을 나타냈다. 자녀의 정서적 지원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r = .36$),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r = .29$)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친구의 정서적 지원을 보면,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 중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r = .29$)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상사의 정서적 지원은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r = .21$)

과 친구의 정서적 지원($r=.16$)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과 교수의 정서적 지원과는 무상관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버지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 대학생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다고 응답할수록, 대학생 자녀 또한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다. 아버지가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생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수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 더불어, 상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아버지 일수록, 자녀도 아버지, 친구, 교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상호관련

대학생		대학생 정서적 지원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수	
부모	배우자 자녀 정서적 지원	아버지	.24 ***	.27 ***	.15 *	-.04
		어머니	.36 ***	.29 ***	.19 **	.15 *
		친구	.29 ***	.16 *	.17 **	.15 *
		상사	.21 **	.08	.16 *	.13
어머니	배우자 자녀 정서적 지원	아버지	.37 ***	.20 **	.15 *	.11
		어머니	.19 **	.41 ***	.24 ***	.12
		친구	.14 *	.23 ***	.25 ***	.13 *
		상사	.32 **	.20 *	.15 *	.31 **

* $p<.05$, ** $p<.01$, *** $p<.001$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 중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r=.37$)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적 지원은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중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r=.41$)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교수와의 정서적 지원은 무상관이었다. 친구의 정서적 지원은 특히 대학생의 친구에게의 정서적 지원($r=.25$)과 정적인 상관이었으며, 상사의 정서적 지원은 대학생의 아버지 정서적 지원($r=.32$)과 교수의 정서적 지원($r=.3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배우자, 자녀, 친구, 상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 경우, 대학생 자녀 또한 아버지, 어머니,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특

히 어머니가 친구와 상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생은 교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관관계가 <표 17>에 나타나 있다. 표를 보면,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각 하위변인과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중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모자녀관계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상호상관이 $r=.14\sim.27$ 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자기조절업무효능감은 대학생의 관계효능감($r=.17$), 어려움극복효능감($r=.15$), 부모자녀관계효능감($r=.18$), 스트레스대처효능감($r=.15$)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기주장효능감은 대학생의 사회성 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자기효능감 변인에서 $r=.13\sim.19$ 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사회성 효능감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각 하위변인 모두에서 $r=.13\sim.19$ 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어려움극복효능감($r=.19$)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관계효능감은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제외한 자기효능감 모든 변인과 $r=.14\sim.24$ 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대학생의 관계효능감($r=.24$)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보면, 대학생의 관계효능감($r=.23$), 어려움극복효능감($r=.25$), 부모자녀관계효능감($r=.23$)과 특히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주장효능감($r=.16$), 사회성효능감($r=.19$), 스트레스대처효능감($r=.19$)과도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부부관계효능감을 보면, 대학생의 사회성효능감($r=.17$), 관계효능감($r=.26$), 어려움극복효능감($r=.14$), 부모자녀관계효능감($r=.23$), 스트레스대처효능감($r=.14$)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특별히, 대학생의 관계효능감($r=.26$)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각 하위변인 모두에서 $r=.20\sim.27$ 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기효능감도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가 자신의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학생도 자신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한 것이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서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과 부모자녀관계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자기조절업무효능감을 보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 사회성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변인 모두 $r=.17\sim.28$ 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효능감($r=.28$)과 자기조절학습효

능감($r=.27$)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자기주장효능감을 보면 대학생의 자기조절효능감($r=.18$), 관계효능감($r=.21$), 어려움극복효능감($r=.25$), 부모자녀관계효능감($r=.24$), 스트레스대처효능감($r=.19$)이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사회성효능감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관계효능감($r=.20$)과 어려움극복효능감($r=.20$)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관계효능감을 보면,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효능감($r=.36$)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어려움극복효능감 역시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효능감($r=.30$)과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부관계효능감을 보면,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효능감($r=.40$)과 관계효능감($r=.36$)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대학생의 어려움극복효능감($r=.29$)과 부모자녀관계효능감($r=.26$)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도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각 하위변인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모자녀관계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높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부모와 자녀의 자기효능감

대학생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학습효능감	자기주장 효능감	사회성 효능감	관계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	부모자녀 관계효능감	스트레스대처 효능감
부모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업무효능감	.12	.07	.11	.17 **	.15 *	.18 **	.15 *
	자기주장효능감	.15 *	.13 *	.10	.20 **	.23 ***	.20 **	.26 ***
	사회성효능감	.15 *	.13 *	.16 *	.18 **	.19 **	.16 *	.17 *
	관계효능감	.11	.16 *	.14 *	.24 ***	.19 **	.17 **	.14 *
	어려움극복효능감	.12	.16 *	.19 **	.23 ***	.25 ***	.23 ***	.19 **
	부부관계효능감	.07	.09	.17 **	.26 ***	.14 *	.23 ***	.14 *
스트레스대처효능감	.20 **	.20 **	.21 **	.21 **	.27 ***	.26 ***	.27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업무효능감	.27 ***	.18 **	.09	.24 ***	.22 ***	.28 ***	.17 **
	자기주장효능감	.18 **	.10	.08	.21 **	.25 ***	.24 ***	.19 **
	사회성효능감	.12	.13 *	.12	.20 **	.20 **	.19 **	.14 *
	관계효능감	.15 *	.18 **	.14 *	.35 **	.21 **	.36 ***	.15 *
	어려움극복효능감	.17 **	.15 *	.06	.21 **	.28 ***	.30 ***	.20 **
	부부관계효능감	.15 *	.19 **	.17 **	.36 ***	.25 ***	.40 ***	.21 **
	스트레스대처효능감	.18 **	.19 **	.10	.21 **	.29 ***	.26 ***	.22 **

* $p<.05$, ** $p<.01$, *** $p<.001$

<표 19>는 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전반

적으로, 아버지의 행복 각 하위변인과 어머니의 행복 각 하위변인은 대학생의 행복 각 하위변인과 $r=.11\sim.51$ 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행복 각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특히 대학생의 행복 각 하위변인 중 정서적 요인($r=.15\sim.26$), 사회적 요인($r=.24\sim.40$), 가정적 요인($r=.22\sim.47$), 전체행복($r=.22\sim.35$), 주관적 안녕감($r=.21\sim.31$)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행복 중 정서적 요인을 보면 대학생의 행복 각 하위변인 중 사회적 요인($r=.34$)와 가정적 요인($r=.33$)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체행복($r=.32$), 주관적 안녕감($r=.30$), 정서적 요인($r=.24$), 건강 요인($r=.19$) 그리고 긍정적 사고($r=.13$)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행복 하위변인 중 사회적 요인을 보면, 대학생의 행복 중 사회적 요인($r=.40$)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행복($r=.33$), 가정적 요인($r=.28$), 주관적 안녕감($r=.28$), 정서적 요인($r=.24$), 긍정적 태도 요인($r=.18$), 건강($r=.15$)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가정적 요인을 보면, 대학생의 가정적 요인($r=.47$)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요인($r=.31$), 전체행복($r=.30$), 정서적 요인($r=.25$), 주관적 안녕감($r=.24$)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긍정적 태도 요인을 보면, 사회적 요인($r=.34$)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체행복($r=.32$), 가정적 요인($r=.30$), 주관적 안녕감($r=.28$), 정서적 요인($r=.23$)이 그 뒤를 이었다. 긍정적 태도 요인($r=.19$)와 건강 요인($r=.19$)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건강 요인의 경우 긍정적 태도 요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r=.15\sim.24$ 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요인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정적 요인($r=.22$), 전체행복($r=.22$), 주관적 안녕감($r=.21$), 정서적 요인($r=.15$), 건강 요인($r=.15$)순으로 나타났다.

행복전체의 경우 사회적 요인($r=.38$)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가정적 요인($r=.37$), 전체행복($r=.35$), 주관적 안녕감($r=.31$), 정서적 요인($r=.26$), 건강 요인($r=.19$), 긍정적 태도 요인($r=.16$)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대학생의 행복 각 하위변인 모두에서 $r=.16\sim.38$ 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아버지가 행복함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도 자

신의 행복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아버지의 행복감은 대학생의 정서적, 사회적, 가정적인 전체행복과 주관적 안녕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행복 각 하위변인을 보면, 대학생의 행복 각 하위변인과 대체적으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r=.14\sim.51$)를 나타내고 있다.

정서적 요인을 보면 대학생의 행복 중 전체행복($r=.33$)과 특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서적 요인($r=.32$), 사회적 요인($r=.30$), 가정적 요인($r=.29$), 주관적 안녕감($r=.27$), 긍정적 태도 요인($r=.20$), 건강 요인($r=.18$)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요인을 보면 대학생의 행복 각 하위변인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r=.24\sim.48$)를 나타냈으며 특히 사회적 요인($r=.48$)과 전체행복($r=.43$)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r=.3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정서적 요인($r=.34$), 긍정적 태도 요인($r=.27$), 건강 요인($r=.27$), 가정적 요인($r=.24$)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9> 부모와 자녀의 행복

대학생		대학생의 행복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전체행복	주관적 안녕감 (Diener)
아버지의 행복	정서적 요인	.24 ***	.34 ***	.33 ***	.13 *	.19 **	.32 ***	.30 ***
	사회적 요인	.24 ***	.40 ***	.28 ***	.18 **	.15 *	.33 ***	.28 ***
	가정적 요인	.25 ***	.31 ***	.47 ***	.11	.11	.30 ***	.24 ***
	긍정적 사고	.23 ***	.34 ***	.30 ***	.19 **	.19 **	.32 ***	.28 ***
	건강	.15 *	.24 ***	.22 **	.10	.15 *	.22 **	.21 **
	행복전체	.26 ***	.38 ***	.37 ***	.16 *	.19 **	.35 ***	.31 ***
어머니의 행복	정서적 요인	.32 ***	.30 ***	.29 ***	.20 **	.18 **	.33 ***	.27 **
	사회적 요인	.34 ***	.48 ***	.24 ***	.27 ***	.27 ***	.43 ***	.35 ***
	가정적 요인	.32 ***	.30 ***	.51 ***	.21 **	.14 *	.35 ***	.24 **
	긍정적 사고	.26 ***	.24 ***	.25 ***	.21 **	.21 **	.30 ***	.25 ***
	건강	.28 **	.32 ***	.16 ***	.25 ***	.31 ***	.33 ***	.23 ***
	행복전체	.37 ***	.41 ***	.34 ***	.27 ***	.26 ***	.42 ***	.33 ***

$p<.05$, ** $p<.01$, *** $p<.001$

가정적 요인을 보면 대학생의 행복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관계($r=.14\sim.51$)가 나타났고, 특히 가정적 요인($r=.51$)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전체행복

($r=.35$)과 정서적 요인($r=.32$), 사회적 요인($r=.30$), 주관적 안녕감($r=.24$), 긍정적 태도 요인($r=.21$), 건강 요인($r=.14$)순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긍정적 사고를 보면 대학생의 행복 하위변인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r=.21\sim.30$)가 있었고, 특히 전체행복($r=.30$)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서적 요인($r=.26$)과 가정적 요인($r=.25$)이 뒤를 이었고 주관적안녕감($r=.25$), 사회적 요인($r=.24$), 긍정적 태도 요인($r=.21$), 건강 요인($r=.21$)도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 변인 중 건강은 대학생의 행복 하위변인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r=.16\sim.33$)가 있었고, 전체행복($r=.33$)변인이 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행복전체에서는 대학생의 행복 각 하위변인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r=.26\sim.42$)를 나타냈고, 특히 전체행복($r=.42$), 사회적 요인($r=.41$)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를 미루어 살펴보면 어머니가 행복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인 대학생도 자신의 행복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정서적인 행복을 많이 느낄수록, 대학생 자녀도 정서적 행복에 있어서 높게 지각하고, 어머니가 긍정적 사고를 하면, 대학생 자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태도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역시 건강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행복전체는 대학생의 행복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의 행복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그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대학생의 행복

대학생은 아버지, 어머니, 교수,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하다고 지각하였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사회계층과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대하여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니, 첫째, 관계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구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정서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적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정경제수준과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수의 정서적 지원과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신이 정서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과 신뢰, 가정경제수준에 대하여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요인에 대한 수준을 높게 지각하였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교수의 정서적 지원, 부모자녀관계효능감을 높게 응답한 학생일수록 사회적 요인에 따른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셋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고, 관계효능감과 가정경제준을 높게 인식한 학생일수록 가정적 요인에 따른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넷째,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신뢰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태도 요인에 따른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인 경우에도 긍정적 태도 요인에 근거한 행복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섯째,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친구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신뢰와 가정경제수준에 대하여 높게 지각한 학생일수록 자신의 건강하다고 생각하였다. 여섯째, 관계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주관적 학업성적을 높게 지각하고 가정경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자신의 주관적안녕감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2) 아버지의 행복

아버지 집단은 배우자, 자녀, 친구, 상사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정서적, 사회적, 가정적, 긍정적 태도요인, 건강, 행복전체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의 정도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계층과 가정경제가 높을수록 행복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첫째, 자기조절업무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이 높다고 생각하고 친구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으며, 사회계층과 주관적인 직업성취를 높게 지각하는 아버지일수록 정서적 요인에 따른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부부관계효능감이 높고, 가정경제수준과 신뢰수준, 주관적인 직업성취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으로 행복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셋째, 부부관계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적인 요인에 따른 행복감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였다. 넷째, 어려움극복효능감과 사회성효능감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직업성취가 높을수록,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으며 가정경제수준과 신뢰수준을 높게 지각한 아버지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로 인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자기조절업무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신뢰수준과 주관적인 직업성취를 높게 인식하는 아버지일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3) 어머니의 행복

어머니는 배우자, 자녀, 친구, 상사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신이 행복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알아보았더니, 첫째, 주관적인 직업성취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관계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정서적 요인에 따른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가정경제수준이 높고, 부부관계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사회적인 행복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부부관계효능감이 높고 관계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정적으로 행복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넷째, 어려움극복효능감과 부부관계효능감이 높고,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어머니일수록 긍정적인 태도에 따른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

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였다.

4) 부모와 자녀의 행복

부모와 자녀의 행복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첫째, 아버지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 대학생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할수록, 대학생 자녀 또한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다. 셋째, 아버지가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생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수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 넷째, 상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아버지 일수록, 자녀도 아버지, 친구, 교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과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의 관계를 살펴보니, 첫째, 배우자, 자녀, 친구, 상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어머니일 경우, 대학생 자녀 또한 아버지, 어머니,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둘째,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어머니일수록 대학생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어머니가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생도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높게 인식하였다. 넷째, 상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어머니일수록, 대학생도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수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서 각 상호관계를 알아보니,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의 경우는 특히 관계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모자녀관계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첫째, 부모가 행복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인 대학생도 자신의 행복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대학생도 정서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대학생 자녀도 사회적인 행복에 있어서 높게 지각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행복은 대학생의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전체행복,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행복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대학생은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긍정적 태도 요인, 건강 요인, 전체 행복, 주관적안녕감 모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과 부모가 느끼는 행복의 관계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서적 요인이 삶의 각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포함한다는 결과(Emmons & Diener, 1985; 서은국, 2007)와, 자기효능감에는 긍정적인 정서가 큰 영향이 있다는 결과(김명소, 임지영, 2003; 김동형, 2003, 이정구, 2005; 박영신, 김의철, 2001; 이수경, 2003; 정갑순, 2002; 황혜자, 최윤희, 2003; 이지선, 김민영, 서은국, 2004; Namok, 2005)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운경, 2005;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계층 및 가정경제수준은 대학생의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추홍규(2005)의 연구에서 나타났다듯이, 경제력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부모와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은 정적 관계에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과 대학생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생도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볼때,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용태, 1997)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주위사람,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긍정적인 지원과 관계가 한국인에게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나타낸다(구재선, 2005; 최영신, 2006; 최중숙, 2006).

넷째, 부모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정적 관계에 있었다.

특히 부모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의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모자녀관계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매우 높은 정적 관계에 있었다.

다섯째,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은 서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대학생 스스로 행복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자녀의 생활만족도의 경우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관계에 있었다는 연구(김의철, 박영신, 2001; 장우귀, 2007)와 일치되며,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가정생활에서 한국인의 가치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박영신, 2000;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가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부모에게서 사랑이나 애정, 그리고 통제를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며, 이 부분이 청소년에게 있어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던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0)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섯째, 이 연구는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나 수도권에서만 국한된 표집과 분석은 전체 내용을 일반적인 현상에 대입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차후에 좀 더 많은 표집대상을 통한 심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구재선. (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김명소, 임지영. (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동형. (2005).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와의 관계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6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4), 973~1002
- 김의철, 박영신. (2006a).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김의철, 박영신. (2006b).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 4. Yamagishi, T의 Trust and social intelligence: The evolutionary game of mind and society.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의철, 박영신, 탁수연. (2005). 청소년의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3~108.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 노호은, 박경자.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 pp. 55~71

뉴시스(2007년 12월 2일). 문국현 “과로 없는 사회” 주말 표심 공약.

뉴시스(2007년 12월 3일). <대선후보 복지공약은> 무상보육·기초노령연금. 앞세워 청와대 노린다.

문순덕. (2006). 대학생과 부모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박영신. (2000).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67~98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7

박영신, 김의철. (2001). 서장: 자기효능감과 행동특성. 박영신, 김의철 역.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 총서 3. 서울: 교육과학사.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 연구**, 10(1), 139~165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중단 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41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중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서은국. (2007). 한국 청소년의 주요 생활경험과 행복감. 우리학생들은 행복한가? 한국교육심리학회 2007년도 연차학술대회, 17~28.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07). 학교교육 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명자, 송영명. (2005)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업적 동기와 자기평가의 차이. **중등교육연구**, 53(1), 85~104

이운경. (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수경. (2003). 여대생들의 긍정적 착각과 주관적 안녕감.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석범, 이경규, 백기청, 김현우, 신수경. (2001). 중. 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효능감의 연관성. **신경정신의학**, 40(6), 1174~1184

이지선, 김민영, 서은국. (2004). 한국인의 행복과 福: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15~125.

오혜경. (2003). 여대생의 신체상,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2), 278~286

장우귀. (2007). 대학생의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토착문화심리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5, 1~21.

정갑순. (2002).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추홍규. (2005). 개인의 행복지수 수준과 결정요인.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최영신. (2006). 가족의 정서적 환경,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최중숙. (2006).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종단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한겨레. (2007년 11월 9일). 한국인 삶의 질 세계 26위.

- 한국일보. (2007년 6월 28일). '해피 홈퍼니' 경영 뜬다.
- 황혜자, 최윤화.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David G. Myers(1993). Pursuit of Happiness. Harper Paperbacks
- Bandura, A.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Bandura, A. (1997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1997b).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DiClemente, C. C. (1986). Self-efficacy and the addictive behavio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302~315
- Diener.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Emmons. R. A. & Diener, E. (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 Namok Choi. (2005).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as predictors of colleague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2(2), Published online in Wiley InterScience (www.interscience.wiley.com).
- Schunk. Dale H. (1982). Reward contingencies and development of children's skill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511~518.
- Uichol Kim, Young-Shin Park, Yong-Eun Kwon. (2005). International analysis of family values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of elderly par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1(1), 109~142
-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hting climate

change: Himan solodaity in a divided word.

Yamagishi. T. (1998). 信頼の構造: こ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ABSTRACT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arents:
With Specific focus on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February, 2008

Educational Psychology Major, Yeong-Ju Kwon

Supervisor, Young-Shin Park

The principal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that the happin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arents has with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The correlation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arents' emotional support, self-efficacy, and happiness has also been analyzed.

The object of analysis for the research was 248 students (86 males, 162 females) currently in their fourth year at a university in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496 parents (248 fathers, 248 mothers). Park and Kim's (1996) parent and student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study's survey instrument both were found to have good reliability. The survey variables for the student included emotional support from the father, mother, friend and professor, while emotional support from the spouse, children, friend and job superior were measured for the parents. Subscales for happiness were composed of emotional, societal, and family factors, as well as optimism and health.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

First, relational efficacy, efficacy in coping with stress, and emotion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have all been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for th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Furthermore, students who experienced high levels of self-efficacy and emotional support from surrounding peopl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increased levels of happiness.

Second, efficacy in self-regulation of business affairs, spousal relationships, ability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emotional support from children and their spouse were confirmed to influence the happiness of fathers. Fathers who experienced high levels of self-efficacy and emotional support also experienced happiness.

Third, children's emotional support, efficacy in spousal relationships, efficacy in their abilities to overcome difficulties, family socioeconomic status,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for the happiness of mothers. Mothers who experienced high levels of emotional support, self-efficacy, and family socioeconomic status were also likely to experience high levels of happiness.

Fourth, th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fathers, as well as th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mothers,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Similarly, parents with high levels of happiness were more likely to have children with high levels of happiness.

부록

<부록 1> 행복에 대한 대학생용 질문지

<부록 2> 행복에 대한 아버지용 질문지

<부록 3> 행복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



<부록 1> 행복에 대한 대학생용 질문지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용 질문지**는 한국의 학생들이 이러한 웰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지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결과는 한국 학생을 대표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반드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 교육학과 석사 권영주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박영신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김의철 드림

다음 각 문항의 해당하는 () 안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V표** 하십시오.

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인문고 () 실업고 () 대학교

소속 대학(대학생만 응답): () 공과대 () 이과대 () 경영대 () 경상대 () 사범대
() 예술체육학부 () 법과대 () 문과대 () 의과대 () 생활과학대 () 사회과학대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연령: (만) 세

성별: () 남 () 여

객관적인 학교성적: () 수/A () 우/B () 미/C () 양/D () 가/F

본인이 생각할 때 학업에서 성취도: () 매우 높은 성취 () 약간 높은 성취 () 보통 () 약간 낮은 성취
() 매우 낮은 성취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기대: () 고졸 () 대졸 () 석사 졸 () 박사 졸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기대: () 고졸 () 대졸 () 석사 졸 () 박사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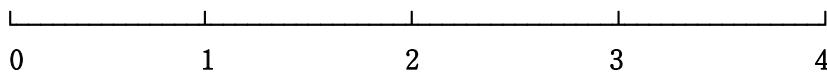
가정의 경제수준: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 () 최상류층 () 상류층 () 중류층 () 하류층
() 극빈층

부모 유무: () 친부모 () 편부/편모 () 계부/계모

당신은 평소에 신뢰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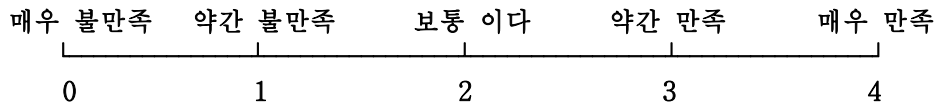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1.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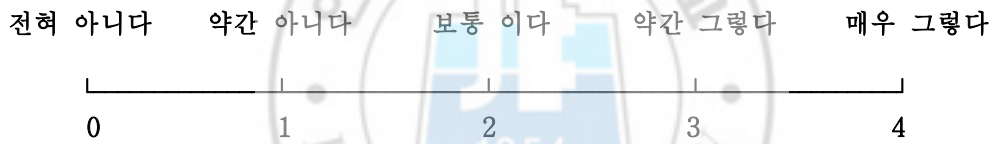
- () 2.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
- () 3. 대부분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 () 4.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
- () 5. 나는 신뢰로운 사람이다.
- () 6.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친절해진다.

당신은 평소 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 () 1. 부모와의 관계
- () 2. 가정생활
- () 3. 경제적인 생활수준
- () 4. 동성 친구와의 관계
- () 5. 이성 친구와의 관계
- () 6. 여가생활
- () 7. 선생님과의 관계
- () 8. 학교생활
- () 9. 학업성적
- () 10. 건강

당신은 다음 문항과 관련해 평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 () 1.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 () 2.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 () 3.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
- () 4.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 () 5. 나는 몸이 건강하다.
- () 6. 어떤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7.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 () 8. 우리 아빠와 엄마는 서로 사이가 좋다.
- () 9. 경제적 부담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 () 10.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 () 11. 나의 교육적인 성취수준에 자부심을 갖는다.
- () 12. 나는 체력이 강하다.
- () 13. 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 본다.
- () 14.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 15. 부모님은 나와 자녀들을 아껴주신다.
- () 16. 꼭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된다.
- () 17.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 () 18.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 () 19. 나는 피로를 모르고 활기차게 생활한다.
- () 20.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하지 않는다.
- () 21. 나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 () 22. 우리 식구들은 서로 위해 준다.
- () 23.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 () 24.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 () 25. 내 삶이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본다.
- () 26. 나는 넘치는 기운으로 매사에 의욕이 있다.
- () 27. 늘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 () 28. 내가 하고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에 산다.
- () 29. 많은 측면에서 내가 원하던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 () 30. 나는 매우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
- () 31.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 () 32.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 () 33.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 () 34. 전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항의 () 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약간	약간	어느 정도	매우
	잘할수 없다	잘할수 없다	잘할수 있다	잘할수 있다	잘할수 있다
	0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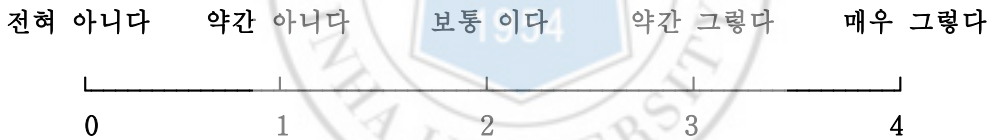
- () 1. 당신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까 ?
- () 2.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자신있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

- () 3. 당신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까 ?
- () 4. 당신은 친구들과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5.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습니까 ?
- () 6. 당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부모님과 얼마나 잘 의논할 수 있습니까 ?
- () 7.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잘 버릴 수 있습니까 ?
- () 8. 당신은 얼마나 잘 열중할 수 있습니까 ?
- () 9.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당신은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
- () 10. 당신은 식사하는 분위기를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
- () 11. 당신은 선후배와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12. 일이 엉망이 되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얼마나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까 ?
- () 13. 당신은 부모님의 기대에 얼마나 잘 일치할 수 있습니까 ?
- () 14. 당신은 언짢은 경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
- () 15. 당신은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까 ?
- () 16.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은 이 일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까 ?
- () 17. 당신은 모임의 어색한 분위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
- () 18. 당신은 형제자매와의 우애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19.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까 ?
- () 20. 당신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
- () 21. 당신은 일상생활의 문제로 인해 생긴 불쾌한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
- () 22. 다른 흥미있는 일들이 있어도, 당신은 얼마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
- () 23. 주위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
- () 24.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
- () 25. 당신은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26. 당신은 매우 심한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
- () 27.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
- () 28. 불쾌한 경험 후에, 당신이 해야 되는 일에 얼마나 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
- () 29. 당신은 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
- () 30.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얼마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



- () 31. 당신은 놀러 갔을 때 분위기를 얼마나 좋게 할 수 있습니까?
- () 32. 당신은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33. 곤란에 부딪쳐도 당신은 기가 꺾이지 않고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 () 34. 당신은 부모님과 마음을 터놓고 얼마나 잘 대화할 수 있습니까 ?
- () 35. 당신을 기분나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기분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 () 36. 당신은 계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
- () 37. 누구와 대화를 할 때이든 당신의 주장을 얼마나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
- () 38. 당신은 모임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
- () 39. 당신은 선생님과 바람직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40.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당신은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
- () 41. 부모님이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
- () 42. 당신은 불쾌한 일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고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 아버지 >

< 친구 >

- | | |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 ()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 ()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 () 4. 고민을 들어 준다. |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신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어머니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 ()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 ()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신다.

< 선생님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 ()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 ()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신다.

- 감사합니다 -



<부록 2> 행복에 대한 아버지용 질문지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용 질문지**는 한국의 성인들이 이러한 웰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결과는 한국의 성인을 대표하는 자료로서 반드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 교육학과 석사 권영주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박영신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김의철 올림

다음 각 문항의 해당하는 () 안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V표** 하십시오.

연령: (만) 세

성별: () 남 () 여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직업: () 무직 () 노동/생산직 () 판매/서비스직 () 사무/관리직 () 고위관리/전문직

직급: () 사원 () 대리/과장급 () 차장/부장급 () 임원급

객관적으로 직업에서 성취도: () 매우 높은 성취 () 약간 높은 성취 () 보통 () 약간 낮은 성취 () 매우 낮은 성취

본인이 볼 때 직업에서 성취도: () 매우 높은 성취 () 약간 높은 성취 () 보통 () 약간 낮은 성취 () 매우 낮은 성취

맞벌이 여부: () 맞벌이 부부 () 맞벌이 부부 아님

가정의 경제수준: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가정의 월 평균 수입: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만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 () 최상류층 () 상류층 () 중류층 () 하류층 () 극빈층

자녀 수: (명)

자녀의 성공 정도: () 매우 실패 () 약간 실패 () 보통 () 약간 성공 () 매우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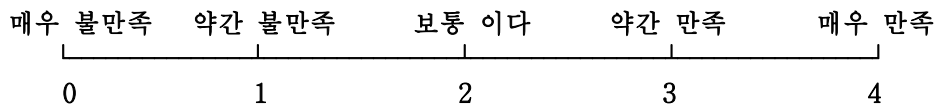
당신은 평소에 신뢰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0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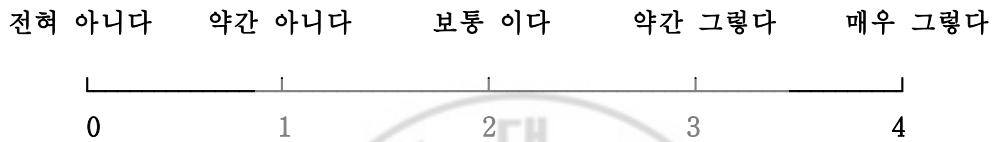
- () 1.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 () 2.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
- () 3. 대부분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 () 4.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
- () 5. 나는 신뢰로운 사람이다.
- () 6.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친절해진다.

당신은 평소 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 | | |
|--|---|
| () 1. 자녀와의 관계
() 2. 가정생활
() 3. 경제적인 생활수준
() 4. 배우자와의 관계
() 5. 친구와의 관계 | () 6. 여가생활
() 7. 직장 상사/동료와의 관계
() 8. 직장생활
() 9. 직업성취
() 10. 건강 |
|--|---|

당신은 다음 문항과 관련해 평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 () 1.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 () 2.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 () 3.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
- () 4.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 () 5. 나는 몸이 건강하다.
- () 6. 어떤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7.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 () 8.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다.
- () 9. 경제적 부담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 () 10.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 () 11. 나의 성취수준에 자부심을 갖는다.
- () 12. 나는 체력이 강하다.
- () 13. 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 본다.
- () 14.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 15. 가족들은 서로 아껴준다.
- () 16. 꼭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된다.
- () 17.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 () 18.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 () 19. 나는 피로를 모르고 활기차게 생활한다.
- () 20.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하지 않는다.
- () 21. 나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 () 22. 우리 식구들은 서로 위해 준다.
- () 23.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 () 24.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 () 25. 내 삶이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본다.
- () 26. 나는 넘치는 기운으로 매사에 의욕이 있다.
- () 27. 늘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 () 28. 내가 하고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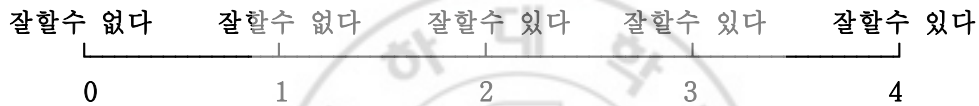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항의 () 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잘할수 없다	약간 잘할수 없다	약간 잘할수 있다	어느 정도 잘할수 있다	매우 잘할수 있다
0	1	2	3	4

- () 1. 당신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까 ?
- () 2.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자신있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
- () 3. 당신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까 ?
- () 4. 당신은 친구들과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5.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습니까 ?
- () 6. 당신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 7.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잘 버릴 수 있습니까 ?
- () 8. 당신은 얼마나 잘 열중할 수 있습니까 ?
- () 9.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당신은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
- () 10. 당신은 식사하는 분위기를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
- () 11. 당신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12. 일이 엉망이 되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얼마나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까 ?
- () 13.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 14. 당신은 언짢은 경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
- () 15. 당신은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
- () 16.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은 이 일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까 ?
- () 17. 당신은 모임의 어색한 분위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
- () 18. 당신은 형제자매와의 우애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19.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까 ?
- () 20. 의견차이 때문에 배우자와 싸우지 않도록 당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 21. 당신은 일상생활의 문제로 인해 생긴 불쾌한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
- () 22. 다른 흥미있는 일들이 있어도, 당신은 얼마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

- () 23. 주위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
- () 24.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
- () 25. 당신은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26. 당신은 매우 심한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
- () 27. 배우자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도 얼마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 () 28. 불쾌한 경험 후에, 당신이 해야 되는 일에 얼마나 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
- () 29. 당신은 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
- () 30.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얼마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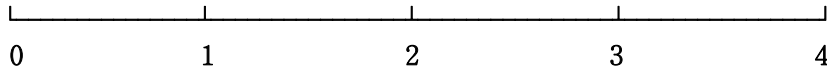
전혀 약간 약간 어느 정도 매우



- () 31. 당신은 놀러 갔을 때 분위기를 얼마나 좋게 할 수 있습니까 ?
- () 32. 당신은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33. 곤란에 부딪쳐도 당신은 기가 꺾이지 않고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 () 34.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배우자의 도움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습니까 ?
- () 35. 당신을 기분나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기분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
- () 36. 당신은 계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
- () 37. 누구와 대화를 할 때이든 당신의 주장을 얼마나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
- () 38. 당신은 모임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
- () 39. 당신은 직장 상사나 동료와 바람직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40.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당신은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
- () 41. 당신은 배우자와 만족한 성관계를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
- () 42. 당신은 불쾌한 일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고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배우자 >

< 친구 >

- | | |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 () 4. 고민을 들어 준다. | () 4. 고민을 들어 준다. |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자녀 >

< 직장상사 >

- | | |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 () 4. 대화가 통한다. | () 4. 고민을 들어 준다. |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감사합니다 -

<부록 3> 행복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용 질문지**는 한국의 성인들이 이러한 웰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결과는 한국의 성인을 대표하는 자료로서 반드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 교육학과 석사 권영주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박영신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김의철 올림

다음 각 문항의 해당하는 () 안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V표 하십시오.

연령: (만) 세

성별: () 남 () 여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가정의 경제수준: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가정의 월 평균 수입: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만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인이 속하는 집단: () 최상류층 () 상류층 () 중류층
() 하류층 () 극빈층

자녀 수: (명)

자녀의 성공 정도: () 매우 실패 () 약간 실패 () 보통 () 약간 성공 () 매우 성공

맞벌이 여부: () 맞벌이 부부 () 맞벌이 부부 아님

직업: () 전업주부 () 노동/생산직 () 판매/서비스직 () 사무/관리직 () 고위관리/전문직

다음 세 문항은 직업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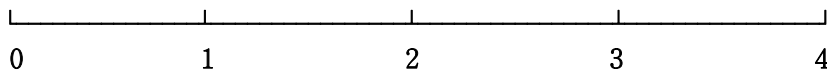
직급: () 사원 () 대리/과장급 () 차장/부장급 () 임원급

객관적으로 직업에서 성취도: () 매우 높은 성취 () 약간 높은 성취 () 보통 () 약간 낮은 성취
() 매우 낮은 성취

본인이 볼 때 직업에서 성취도: () 매우 높은 성취 () 약간 높은 성취 () 보통 () 약간 낮은 성취
() 매우 낮은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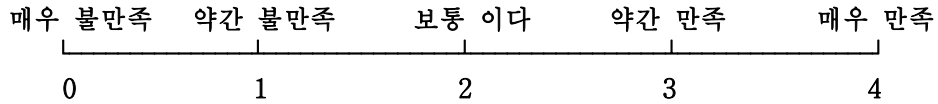
당신은 평소에 신뢰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1.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 () 2.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
- () 3. 대부분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 () 4.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
- () 5. 나는 신뢰로운 사람이다.
- () 6.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친절해진다.

당신은 평소 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 () 1. 자녀와의 관계
- () 2. 가정생활
- () 3. 경제적인 생활수준
- () 4. 배우자와의 관계
- () 5. 친구와의 관계
- () 6. 여가생활
- () 7. 직장 상사/동료와의 관계
- () 8. 직장생활
- () 9. 직업성취
- () 10. 건강

당신은 다음 문항과 관련해 평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 () 1.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 () 2.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 () 3.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
- () 4.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 () 5. 나는 몸이 건강하다.
- () 6. 어떤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7.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 () 8.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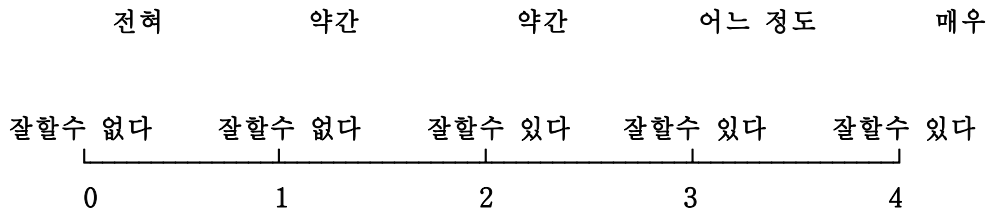
- () 9. 경제적 부담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 () 10.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 () 11. 나의 성취수준에 자부심을 갖는다.
- () 12. 나는 체력이 강하다.
- () 13. 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 본다.
- () 14.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 15. 가족들은 서로 아껴준다.
- () 16. 꼭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된다.
- () 17.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 () 18.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 () 19. 나는 피로를 모르고 활기차게 생활한다.
- () 20.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하지 않는다.
- () 21. 나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 () 22. 우리 식구들은 서로 위해 준다.
- () 23. 편안한 마음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 () 24.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 () 25. 내 삶이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본다.
- () 26. 나는 넘치는 기운으로 매사에 의욕이 있다.
- () 27. 늘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 () 28. 내가 하고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에 산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항의 () 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약간	약간	어느 정도	매우
	잘할수 없다	잘할수 없다	잘할수 있다	잘할수 있다	잘할수 있다
	0	1	2	3	4

- () 1. 당신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까 ?
- () 2.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자신있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
- () 3. 당신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까 ?
- () 4. 당신은 친구들과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5.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습니까 ?
- () 6. 당신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 7.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잘 버릴 수 있습니까 ?
- () 8. 당신은 얼마나 잘 열중할 수 있습니까 ?
- () 9.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당신은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
- () 10. 당신은 식사하는 분위기를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
- () 11. 당신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12. 일이 엉망이 되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얼마나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까 ?
- () 13.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 14. 당신은 언짢은 경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
- () 15. 당신은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
- () 16.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은 이 일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까 ?
- () 17. 당신은 모임의 어색한 분위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
- () 18. 당신은 형제자매와의 우애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19.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까 ?
- () 20. 의견차이 때문에 배우자와 싸우지 않도록 당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 21. 당신은 일상생활의 문제로 인해 생긴 불쾌한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
- () 22. 다른 흥미있는 일들이 있어도, 당신은 얼마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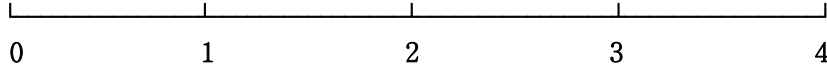
- () 23. 주위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 () 24.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 () 25. 당신은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26. 당신은 매우 심한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 () 27. 배우자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도 얼마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 () 28. 불쾌한 경험 후에, 당신이 해야 되는 일에 얼마나 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 () 29. 당신은 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 () 30.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얼마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 () 31. 당신은 놀러 갔을 때 분위기를 얼마나 좋게 할 수 있습니까?
- () 32. 당신은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33. 곤란에 부딪쳐도 당신은 기가 꺾이지 않고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 34.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배우자의 도움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습니까?
- () 35. 당신을 기분나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기분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 () 36. 당신은 계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 () 37. 누구와 대화를 할 때든 당신의 주장을 얼마나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 () 38. 당신은 모임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 () 39. 당신은 직장 상사나 동료와 바람직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40.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당신은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 () 41. 당신은 배우자와 만족한 성관계를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 () 42. 당신은 불쾌한 일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고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모든 문항의 () 속에 0~4 중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배우자 >

< 친구 >

- | | |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 () 4. 고민을 들어 준다. | () 4. 고민을 들어 준다. |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자녀 >

< 직장상사 >: 직장이 있는 경우만 응답

- | | |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 () 4. 대화가 통한다. | () 4. 고민을 들어 준다. |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감사합니다 -

◆ 제본방법

학위논문을 작성 완료한 후 제본규격에 맞도록 장정(裝幀) 및 제본

가. 판종 : 4×6배판(188mm×257mm)

나. 제본식 : 클로스 양장

다. 표지색깔 및 활자 : 석사학위논문은 곤색, 박사학위논문은 흑색, 활자는 금색

◆ 양식

가. 편집용지 : 가로 188mm×세로 257mm

나. 여백 : 위쪽 15mm, 아래쪽 21mm

왼쪽 24mm, 오른쪽 21mm

머리말 5mm, 꼬리말 8mm

다. 글자모양

큰제목 : 16Point,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진하게

중간제목 : 13Point,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진하게

본문 : 11Point(180%), 들여쓰기 : 3ch, 정렬방식 : 혼합

인용문 : 11Point(160%), 각주 : 10Point(140%)

라. 논문표지 : 붙임참조

마. 참고문헌 : 본문과 동일

◆ 구성 및 순서

- 겉표지
- 속표지(국문 또는 영문)
- 인정서
- 목차
- 그림 및 표 목차
- 국문요약(2페이지 이내)-하단부에 Key Words 기입
- 영문요약(2페이지 이내)-하단부에 Key Words 기입
- 본문
- 결론
- 참고문헌